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에서 열린 'D-200 행사' 참석했다. 사진은 지난 4월 대선 후보시절 평창동계패럴림픽 마스코트인 반디비바 인사를 나누고 있는 모습.

평창동계올림픽 분위기 조성

문 대통령, 'G-200' 행사 참석

평창동계올림픽 홍보대사 위촉... SNS 홍보 캠페인 진행

문재인 대통령은 2018 앞으로 다가온 평창동계올림픽의 분위기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24일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주관으로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열린 'G(Game)-200' 행사에 참석했다.

'G-200, 2018 평창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이희범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장을 비롯해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전 국가 피겨선수 김연아와 '쇼트트랙 간판' 심석희, 장애인 아이스하키 국가대표 정승환도 함께했다.

행사는 1~3부로 나누어 열렸다. 먼저 1부 행사에서는 조직위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준비과정을 보고하고, 평창 대회에 대한 소개를 했다. 순남깃이 준비보고도 이뤄졌다. '다함께 평창'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2부 행사에서는 문 대통령이 평창동계올림픽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김연아 선수가 위촉장 대신 홍보대사 명함을 문 대통령에게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홍보 캠페인도 진행했다. 문 대통령이 2018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이 하나된 열정으로 함께하겠습시다라는 메시지를 적었고, 태블릿 PC를 통해 전파됐다.

해당 메시지는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설립자, 유승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과 배우 여제 김연경 선수의 해시태그가 달렸다. 평창올림픽을 전 세계로 홍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내외 유명인사를 해시태그로 달았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또 조직위원회의 관계자를 격려하고 김연아, 개그맨 정찬우 등과 함께 홍보화보와 영상을 촬영했다. 문 대통령은 김연아, 장애인 아이스하키 국가대표와 함께 강원도 음식나누기 행사에도 참석했다. 강원도를 대표하는 음식을 나누며 평창을 홍보했다. /뉴스시스

LPGA김인경, 마라톤 클래식 우승

시즌 2승 달성



김인경(29·한화)이 시즌 2승 달성에 성공했다. 김인경은 24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실베니아의 하이랜드 메도우 골프장(파 71)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마라톤 클래식 최종 4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8개를 잡아내 최종합계 21언더파 263타로 우승을 차지했다. 마지막 날 절정의 컨디션을 자랑한 김인경은 2위 렉시 톱슨(미국)을 4타 차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날 4일 슈라이프 클래식에서 우승을 차지한 김인경은 시즌 2승째를 거뒀다. 우승상금 24만 달러(한화 약 2억 7000만원)도 차지했다. 전날까지 2위에 머물렀던 김인경은 4라운드 1, 3, 4번 홀에서 버디를 잡아 순조로운 출발을 했다. 선두에 올라선 김인경은 7, 8, 9번 홀에서 연속 버디를 낚아 우승에 한

김인경은 24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실베니아의 하이랜드 메도우 골프장 파 71)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마라톤 클래식 최종 4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8개를 잡아내 최종합계 21언더파 263타로 우승을 차지했다. 발 다가갔다. 후반 라운드에서 2타를 줄인 김인경은 경쟁자들을 따돌리고 여유 있는 우승을 차지했다. 기상 악화로 잠시 경기가 중단됐지만, 김인경의 상승세

를 막지는 못했다. 전날 공동 3위였던 박성현(24)은 마지막 날 1타를 줄이는 데 그쳐 13언더파 271타로 공동 6위에 머물렀다. /김민근기자

PGA투어 조던 스피스, 디오픈 우승... 통산 메이저 3승

조던 스피스(미국)가 통산 세 번째 메이저 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스피스는 24일(한국시간) 영국 사우스포트의 로열 버크데일 골프클럽(파 70)에서 열린 제46회 브리티시오픈 골프대회 최종 4라운드에서 이글 1개, 버디 4개, 보기 5개로 1언더파 69타를 기록, 최종합계 12언더파 288타로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2015년 마스터스 토너먼트와 US오픈을 제패한 스피스는 브리티시오픈까지 거머쥐었다. 개인 통산 세 번째 메이저 대회 우승과 함께 '클라레 지그(Clarie Jug·우승 트로피)', 우승상금 184만5000달

러(약 20억6000만원)도 차지했다. 오는 27일이면 만 24세가 되는 스피스는 1963년 잭 니클라우스(23세 6개월)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메이저 3승을 수확한 선수로 이름을 올렸다. 3라운드까지 1위를 지켰던 스피스는 4라운드 들어 흔들렸다. 1, 3, 4번 홀에서 연달아 보기를 기록해 맷 쿠차(미국)에게 추격을 허용했다. 5번 홀에서 첫 버디를 기록했지만, 9, 13번 홀에서 다시 보기를 범해 주춤했다. 경기 막판 스피스의 집중력이 발휘됐다. 14번 홀에서 첫 번째 샷을 홀컵에 넣은 후 버디를 잡았다.

곧바로 15번 홀에서 이글에 성공해 분위기를 바꿨다. 16, 17번 홀에서도 연달아 버디를 낚아 쿠차의 추격을 따돌렸다. 18번 홀을 파로 마무리한 스피스는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에 성공했다. 쿠차는 9언더파 271타로 준우승에 머물렀다. 재미동포 김찬(27)은 3언더파 277타로 공동 11위에 이름을 올렸다. 강성훈(30)과 장이근(24), 나상욱(34)은 3오버파 283타 공동 44위에 그쳤고, 송영한(26)과 김경태(31)는 공동 62위에 머물렀다. /김민근기자

'덩케르크' 개봉 첫 주말 100만명 돌파 박스오피스 정상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새 영화 '덩케르크'가 개봉 첫 주말 100만명이 넘는 관객을 끌어모으며 박스오피스 정상에 올랐다. 24일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덩케르크'는 21~23일 1245개관에서 2만 1927회 상영, 111만9002명이 봐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 (누적 관객수 134만9214명). 이 기간 매출액은 98억원(누적 매출액 116억원), 매출액 점유율은 46.5%였다. '덩케르크'의 흥행세는 개봉 2주차까지 이어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류승완 감독 신작 '군함도'(28일 개

봉)가 예매 관객수 17만2011명(24일 오전 7시 기준)으로 기록 압도적인 차이로 예매 순위 1위(예매 점유율 61.1%)에 올라있어 '덩케르크'의 최종 관객수는 200만명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 '다크 나이트'(416만명) 이후 놀란 감독이 내놓은 작품들은 모두 최종관객수 500만명을 넘긴 바 있다. 영화는 놀란 감독이 '인터스텔라'(2014) 이후 3년 만에 내놓은 작품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0년 5월 프랑스 덩케르크 해변에서 벌어진 실제 사건인 '덩케르크 철수 작

전'을 영화화했다. 핀 화이트헤드·케네스 브래너·톰 하디·마크 라이런스·킬리언 머피 등이 출연했다. '덩케르크'는 실제 전장에 있는 듯한 체험을 주는 연출, 기존 전쟁 영화 문법을 뒤엎는 시도 등으로 국내에서 호평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놀란 영화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한편 '스파이더맨:홈 커밍'은 주말 동안 53만명(박스오피스 2위)을 추가 700만 관객 고지에 15만명을 남겨두게 됐다(누적 관객수 685만명). /뉴스시스

오승환, 컵스전 7회 등판 1이닝 2K 무실점

오승환(35·세인트루이스 카디날스)이 팀이 지고 있는 상황에 등판해 1이닝을 완벽하게 틀어막았다. 오승환은 24일(한국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리글리 필드에서 열린 2017 메이저리그(MLB) 시카고 컵스와의 경기에서 팀이 3-5로 뒤진 7회말 등판해 1이닝 동안 무안타 무실점을 기록했다. 3경기 연속 비자책점 행진을 이어간 오승환의 시즌 평균자책점은 3.98에서 3.89로 낮아졌다. 승패나 세이브와는 관계가 없었다.

12개의 공을 던지며 삼자범퇴로 이닝을 마친 오승환은 삼진 2개를 솟아냈다. 최고 구속은 시속 95.8마일(약 154km)까지 나왔다. 22일 컵스전 등판 이후 하루 휴식을 취한 오승환은 7회 선두타자 에디슨 러셀을 헛스윙 삼진을 처리했다. 볼카운트 2B2S에서 6구째로 시속 95.4마일짜리 직구를 뿌려 헛스윙을 유도했다. 오승환은 이어 타석에 들어선 하비에르 비에스도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웠다. 이번에는 슬라이더로 연달아



헛손질을 이끌어냈다. 오승환은 벤 조브리스트에게 시속 94.5마일짜리 직구로 2루수 뜬공을 유도해 깔끔하게 이닝을 마쳤다. 세인트루이스는 추가점을 뽑지 못해 3-5로 졌다. 2연패에 빠진 세인트루이스는 51패째(47승)를 당했다. /김민근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